



UR 협상과 한우가 나갈 길

개방화시대 - 한우산업의 대책과 진로



이 종 순
농민신문사 경제부기자

갑술(甲戌)년 새해를 맞아 대다수 국민들은 새로운 성취목표를 세우는 등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개방화의 물결에 어떻게 변화할지 국내 축산업의 장래 가족의 생계를 맡긴 한우사육 농가들은 희망보다도 불안감이 앞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쇠고기가 2001년 부터 수입개방되고 그 이전까지의 무수입량인 쿼터량이 크게 증가되도록 결정된데다 1월에는 축산폐수처리 단속으로 축산농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설상가상격으로 생우(生牛) 수입 자유화 발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즉 축산농가들은 국제적으로 거센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물결을 수용해야 하고 생산비 절감과 환경문제

등 내부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쇠고기수입개방·축산폐수·생우수입 자유화」의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불과 6년후인 2000년에 '92년 한해 동안의 국내 전체 쇠고기 소비량과 맞먹는 22만5천톤의 수입 쇠고기를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다음해에 불과 관세 41.2%로 쇠고기와 생우(生牛)가 완전 수입 자유화 된다니 한우 사육농가들은 축산업을 포기하란 말과 다름 없다.

생우수입자유화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품질 고급화로 수입쇠고기에 대응할 계획이었는데 값싼 생우가 수입돼 도축후 신선육 형태로 판매될 경우 한우가 품질·가격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

다.

최근 축산업분야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수입자유화 조치를 바라보는 대다수 한우사육 농가들 사이에는 이같은 항변(抗辯)과 함께 「한우산업은 이제 끝장」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전에는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액이 쌀분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막상 UR협상 타결이후에는 쇠고기 분야 피해액이 쌀분야 피해액의 3~4배에 달하는 2조1천억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쇠고기 분야만큼은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냄으로서 실리추구작전에 성공한 미국이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에 수출한 쇠고기 양은 3만5천톤. 이는 전체 수입량의 43% 정도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쇠고기수출 1위 국가로 부상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쇠고기 수입쿼터량이 늘어나고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호주·뉴질랜드 등 기존의 쇠고기수출국들은 한국에 더 많은 쇠고기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판촉활동에 나설 것이고, 중국도 잠재적인 쇠고기 수출 가능성이 있어 빗장풀린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은 균용할거시대를 맞이한 춘추전국시대처럼 쇠고기수출국들의 시장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한우고기와 불꽃튀는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 한우산업은 이에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까.

한우사육 현주소

우리나라 한우사육 역사는 이미 삼한(三韓)시대부터 씨레·철제보습등의 농기구를 제작해 심경농업을 한 사실을 미루어 적어도 2000년전 부터라고 추측된다. 2000년 동안 한우는 우리 민족역사의 현장에서 농경목적·짐운반·고기생산용 등으로 기여해 왔다.

이러한 한우(육우포함)는 '93년 9월기준 전국에 2백30만9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같은 사육규모는 '92년말보다 29만(14.4%) 마리가 늘어난 마리수이다.

산지소값(400kg 큰소 기준)은 '91년에 2백19만원이었다가 '92년 2백40만원을 나타냈고 소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이후인 '93년 10월은 2백26만3천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일부에서는 투매현상마저 나타나면서 소값이 하락해 지난해 12월 29일은 2백17만5천원 1월25일 2백16만4천원을 보였다. 특히 이중 송아지값의 하락은 더욱 심해 암송아지가 지난해 10월말에는 99만1천원이었으나 12월 29일은 87만1천원으로 하락한데다 거래마저 한산해 농가들의 소사육 의욕이 크게 떨어졌음을 반증해주었다.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지난해 9월기준 57만7천가구로 85년말의 1백4만7천가구에 비해 8년사이에 절반에 달하는 농가가 소사육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농가당 평균 소사육마리수는 85년의 2.4마리에서 지난해는 4마리로 늘었다.

농가들이 생산한 소는 도축후 정육점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92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도축된 소는 53만7천여마리로 쇠고기로 환산하면 10만톤 정도의 물량이다. 이 기간중 수입쇠고기가 13만2천톤 수입된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자급률은 44%에 불과

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쇠고기 수입조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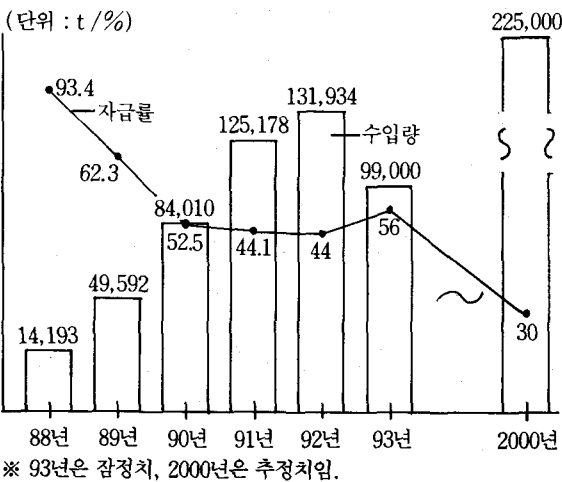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94	95	96	97	98	99	200	201
수입 할당(쿼터) 량(t)		106,000	123,000	147,000	167,000	187,000	206,000	225,000	완 전 수 입 자 유 화
S	할 당 비 율(%)	20	30	40	50	60	70	70	
B	할 당 물 량(t)	21,200	36,900	58,800	83,500	112,200	144,200	157,500	
S	차액금납입률(%)	95	70	60	40	20	10	0	
관 세		20	43.6	43.2	42.8	42.4	42	41.6	41.2

한 셈이다. 이는 90년에 수입량 8만4천톤에 자급률 52.5%, '91년 12만5천톤에 44.1%의 자급률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쇠고기수입량은 '93년 들어서는 9만9천톤으로 줄었고 국내산 자급률도 56%로 다시 높아졌다. 이처럼 쇠고기자급률이 높아진 것은 한우전문판매점 확대 설치등에 따라 수입쇠고기와 차별화가 이뤄진데다 정부의 수입쿼터량 고수외지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92년 7월부터 육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위한 육류도체등급제가 실시된 이후 한우사육농가들 사이에는 고급육 생산 욕망이 확산되고 있고 독창적인 브랜드화 작업도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육질차등가격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다 수입육과 젓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우려에 대한 인식등으로 고급육 생산확산과 한우고기 고정소비층을 확산시키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UR협상 결과와 한우산업

'93년 9만9천톤, '94년 10만6천톤에 불과하던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95년 12만3천톤, '96년 14만7천톤, '97년 16만7천톤, '98년 18만7천톤, '99년 20만6천톤으로 계속 증가하다 2000년에는 '92년 한해동안 국내전체 소비량과 맞먹는 22만5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88년 이후 쇠고기수입량 및 자급률 변화>

이 기간중에도 업계간 자율구매 방식인 SBS 물량은 '93년 10%에서 2000년에는 전체수입 쿼터량의 70%인 15만7천5백톤으로 대폭 증가, 사실상 수입자유향화가 이뤄지고 이에 부파되는 차액금 납입률도 현재 95%에서 2000년은 완전히 없어져 2001년은 불과 관세 41.2%로 완전 개방된다.

정부는 이같은 쇠고기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0년의 쇠고기 자급률이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전망이 그동안의 쇠고기 소비증가량이 이례적인데다 수입쇠고기가 새로운 소비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급률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시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우를 보러 동물원에 가는 날이 올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한우사육농가들 사이에 짙게 깔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95~'2001년까지 7년동안 쇠고기부품 피해액을 비교역적기능 품목 중 가장 많은 2조1천억원으로 관측했다.

또 개방화에 따라 '92년에 1kg당 1만1천2백원이던 쇠고기 소매값은 2001년은 이보다 41%가 하락한 6천6백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쇠고기자급률도 24.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산술적 피해외에도 개방은 소사육농가들의 사육의욕 감퇴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사육기반이 취약해졌을 때 쇠고기수출국들이 값을 대폭 올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내 한우사육이 경작농업을 뒷받침해 주었던 점을 감안하면 쌀재배 농가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와함께 국내 소값이 미국에 비해 5배정도 높지만 선호부위와 비선호부위의 값 차이가 크고 쇠고기수출국들의 비선호 부위중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값차이는 훨씬 커



질 수 있어 개방 피해는 산술적인 수치보다 더욱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다.

대책과 진로

한국낙농육우협회등 국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들은 가장 피해가 크고 심각한 축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이뤄져 값싼 수입쇠고기를 반강제적으로 대량 유통시켜야 함으로서 국내 한우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재협상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98년까지 한우전업농 1만4천가구와 한우단지 1백50개소를 육성하고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수입사료원료 무관세화를 실시하며 ▲수입육과 시장 차별화를 위해 97년까지 한우 전문판매점을 8백 개소로 늘리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등을 추진키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발표했다.

무한경쟁시대·국제화시대를 맞아 한우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이다.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 축산농가들은 외국축산농가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값싼 생산자재를 사용해 값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부과하므로써 세제(稅制)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축산물과 경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징수해서 적은 축산농가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막대한 징세비용등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처럼 비과세 조치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아지 가격안정제 법제화

소 생산비중 송아지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소값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송아지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송아지값 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를 막고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송아지값이 보장가격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농가에게 보상해 주는 송아지가격안정제가 법제화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축산업발전을 위해 투자할 재원마련대책

앞으로 축산물 수입자유화와 쇠고기수입량중 SBS 물량증가 및 차액금(make-up) 납입률 감소등으로 축산발전기금 조성 차질이 예상되고 이 기금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도 어려움에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국내 축산업구조개선을 위해 투자될 재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한국마사회의 관장권을 농

세계 각국의 소사육 현황과 쇠고기 소비량

(단위: 천마리, kg)

국 가	소사육마리수	국민1인당 연간쇠고기 소비량
미 국	102,333	43.6
호 주	24,712	38.3
뉴 질 랜드	8,100	29.0
캐 나 다	11,416	36.6
브 라 질	130,057	21.8
인 도	271,200	2.2
중 국	104,590	1.4
일 본	4,980	9.8
프 랑 스	19,850	28.8
터 키	12,000	5.2
남아프리카공화국	13,311	17.7
독 일	17,134	21.2
한 국	2,300	5.2

수입쇠고기와 국내산쇠고기의 가격비교

(단위 : 원 /kg)

품 목	국 가 (A)	호 주 · 미 국 산 수 입 가 격					비 율 (A/B)
		CIF 가격	관 세	부대비용	수입업자이윤	계(B)	
지 육	9,047	1,730	692	87	251	2,760(3,885)	328%(233)
정 육	12,924	3,110	1,244	155	451	4,960(6,982)	261%(185)

※ 관세 : CIF 가격의 40%, 부대비용 : CIF 가격의 5%, 수입업자이윤 : 총비용의 10%, ()안은 차액금납입율 65% 적용시 기준

림수산부로 이관해 지속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토록 하고 SBS 참여업체들의 이익금중 일부를 기금화하는 동시에 수입축산물 관세를 국내 축산업 발전에 환원 투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차별화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 우려등으로 한우고기 고정소비층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위해 한우전문 유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즉 한우전문 도축장을 육성하고 한우전문 판매점을 확대설치하는 동시에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유통단계에서도 수입쇠고기와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유통단계에서도 육질차등가격제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서 한우사육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

농가들이 아무리 고급육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비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해 도축한다면 결과적으로 상품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와같은 비위생적 시설이 쇠고기수출국들의 선진화된 도축시설과 비교된다면 국내산 쇠고기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게되는 만큼 위생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국제수준의 도축시설로 개선해야 한다.

냉장육 유통체계확립

일본이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고급육 중심의 냉장육 수입이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냉장육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현재의 냉동유통에서 냉장유통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전문 판매점부터 냉장숙성실을 설치토록 하고 한우고기가 냉장 수송차량에 의해 운송되도록 전유통시설을 콜드체인화 해야 할 것이다.

“
한국마사회의 관장권을 농림수산부로 이관해 지속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토록 하고 SBS 참여업체들의 이익금중 일부를 기금화하는 동시에 수입축산물 관세를 국내 축산업 발전에 환원투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우고기 홍보강화

외국유통수출업체들의 수입쇠고기 홍보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해 「브랜드화 된 한우」 등을 중심으로 한우고기 우수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생우수입대책

값싼 생우(生牛)가 수입돼 국내에서 도축한 후 신선육 형태로 판매될 경우 국내산과 수입육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검역시설의 제한적 범위내에서 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값싼 생우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국내에서 분양함으로써 판매 이윤을 노리는 경우도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품질 쇠고기생산을 위한 한우개량 사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보급과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권에 대한 농림수산부 환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무튼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개방이라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2천년이 넘는 한우사육 역사를 지키고 한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농가·생산자 단체 모두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